

문화전당 첫 개최·해외갤러리 늘어 '활기'



2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내부에 '2016 광주국제아트페어' 갤러리 부스가 설치되었다. 올해 아트페어는 갤러리를 비롯해 개인작가부스, 특별전 등을 예술극장, 문화창조원, 문화정보원에서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혜배기자 choi@kwangju.co.kr

art:gwangju:16

24일 오후 '2016 광주 국제아트페어'가 막을 올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사람들로 북적이며 활기찬 분위기였다. 공식 개막식은 오후 6시였지만 이날 오후 1시부터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찾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양산동에서 온 이순희(여·56)씨는 "평소 그림을 좋아하고 그리기도 좋아하는데 아트페어에서는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어 방문했다"며 "올해 아트페어는 문화전당에서 열리는 만큼 더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전당을 방문하면 다양한 조각 20여점이 관람객들을 맞는다. 특별전 '광주 조형페스티벌'이다. 문화창조원 바깥길을 따라 소년, 말, 사과 등 높이 1~2m 내외의 조각품이 전시되었다. 한쪽에서는 도예 체험프로그램도 무료로 진행된다. 관람객들은 컵, 그릇 등 간단한 도자기 작품을 만들어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번 아트페어 공간은 크게 갤러리 부스가 설치된 예술극장(지하4층)과 개인작가부스·각종 특별전이 열리는 문화창조원·문화정보원 등 2곳으로 나뉜다.

입장권(1만원)을 끊고 예술극장 로비로 들어가면 앤디 워홀의 '마오'가 전시된 줄리아나 갤러리가 보인다. 프랑스 파리 B.O.A Galerie 등 국내외 갤러리가 설치되었다.

로비 한편에는 강연·특별전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광주 미술 수준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마련된 전시다. 강연·특별전 화백은 전시기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청년작가를 1명 선정한다고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에스켈레이드를 타고 올라가면 청도작가 교류전, 한국

개막 첫 날에 들러본 광주국제아트페어

관람객 "다양한 작품 볼 수 있어 좋아"

"관람객도 작품 판매도 늘어날 것" 기대

강연·특별전 등 부대전시 눈길

114개 개인부스 작가가 직접 작품 설명

전통민화전 등 각종 부대전시가 진행 중이다.

예술극장 내부로 들어가면 본격적인 갤러리부스를 감상할 수 있다. 올해는 74개 갤러리가 참여했으며 이중 해외갤러리는 32개다.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다. 프랑스, 미국, 캐나다, 중국 등 이색적인 작품이 눈에 띈다. 인도 갤러리 1000A에는 사람 하반신을 형상화한 'Golden nipple'이 설치되었다. 갈색 가죽을 소재로 만들어져 흥미해하자 갤러리 관계자가 "어머니 사랑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리서울갤러리 조은조 관장은 "소속작가들의 새로운 작품 위주로 전시하고 있다"며 "개막식에 VIP가 많이 온다고 하니 올해는 판매가 많이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선화랑(서울)은 정우범 등 서울에서 활동하는 지역출신 작가 작품 위주로 준비했다.

별써 작품을 판매한 갤러리도 있었다. 광주 이명자 갤러리S 관장은 "몇몇 분이 오더니 배수민 작가 작품을 구입했다"며 "미니 음악회 등 관람객들을 끌기 위한 이벤

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예술극장을 나와 문화창조원 지하 2층을 들어가면 다시 티켓 검사를 한다. 입장권을 한번 구입하면 언제든지 재입장이 가능하니 버리지 말아야 한다.

계단을 따라 문화창조원 지하2층을 올라가면 비엔날레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빛, 생명, 물질(光-生-物)'을 주제로 한 국내, '공상공화국(0상0화국)' 주제 국외전으로 나뉜다. 높이 2m가 넘는 어린이 조각상(이기원 작가)은 사진촬영 배경으로 인기가 있었다. 국외전에서는 지역신문으로 미사일을 형상화 작품이 눈에 띈다. 전당에 '빅토리' 대형조각상을 설치했던 중국 왕두 작가가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을 담은 작품이다.

특별전을 나오면서부터는 지난해 처음 도입해 호응을 얻었던 개인 작가부스다. 문화창조원 지하2층부터 문화정보원 지하3층까지 114개가 설치되었다. 입구에서 나눠 주는 브로셔에 작가 명단과 위치가 나와 있으니 만나고 싶은 작가를 찾아가면 된다.

관화작품 10여점을 들고 나온 강행복 작가는 "판매도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게 아트페어의 장점이다"며 "문화전당에서 열리는 만큼 관람객이 지난해보다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인부스 중간중간 '광주시 공예명장전', '광주민족미술인협회전'이 열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한편 일부 갤러리와 작가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왔다. 타지역 갤러리 관계자는 "원래 전시공간으로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서 냉방도 잘 되지 않고 전기 시설도 미흡하다"고 토로했다. 또 문화창조원 지하2층 부스에 자리잡은 작가 A씨는 "너무 구석진 곳에 작가부스를 설치해 관람객들이 모르고 지나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문의 062-226-805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장애·비장애인 문화예술 교류 '다르기'전

29일~9월 2일 조선대미술관...한·일 작가 150명 참여



김미란 작 '승리'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은 많다. 작품만 봤을 때는 장애와 비장애인이 구분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분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장애인 작가와 비장애인 작가를 구분한다.

장애인·비장애인이 예술로써 어울리며 편견과 오해를 해소시키고 있는 제3회 한·일 장애인·비장애인 문화예술 교류 '다르기'전이 오는 29일~9월2일 조선대학교 미술관에서 펼쳐진다. '다르기'는 부사 '더불어', '함께'를 의미하는 단어로, 영어로는 'Together(투게더)'다.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주미술협회, 조선대, 전남대, 호남대 등 다양한 기관들의 후원으로 열리고 있다.

올해는 국내 작가를 비롯해 광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센다이, 오사카 작가 40여명이 찾아오는 등 양국에서 약

150명이 참여한다. 대규모 작품들이 출품되는 만큼 장르도 다양하다. 서예, 사진, 유화, 수채화, 드로잉, 공예, 설치 등 어느 전시 못지 않은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전시작들은 한국과 일본,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 어울려 배치한다. 관람객들에게 순수한 작품성만 선보이려는 의도다. 손으로 그릴 수 없어 입으로 그리는 등 지난 1년간 열심히 준비한 작품들이다.

정한울 공동추진위원장은 "행사를 진행할수록 많은 장애인 작가들이 참여해 편견 해소를 돕고 있다"며 "다음 행사는 중국·동남아 등과 연계해 국제교류전 형식으로 치를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픈행사는 30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문의 062-230-783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예총 조각전·서구니눔음악회

25일~9월 7일 아시아창작스튜디오

광주예총(회장 최규철)은 25일부터 9월 7일까지 조각전과 '서구니눔음악회'를 아시아창작스튜디오에서 개최한다. 지역특화 문화거점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조각을 산책하다'전에는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각가 15명이 참여한다.

25일 오후 3시에는 아시아창작스튜디오 방울소리 공연장에서 클래식 음악회가 열린다. 바리톤 염종호씨를 비롯해 최은혜(피아노), 최은성(플루트), 김민하(클라리넷)씨 등이 출연.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한다. 문의 062-528-920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정용 작 'Gift'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http://jinhan-shona_blog.me

박물관 시낭송콘서트 금남로 연가

- 일시 | 2016년 8월 31일 오후6시
- 주최 |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운영위원회
- 장소 | 세계조각장식박물관
- 주관 | 서구문화원 다솜 시낭송회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062)222-0072, 226-5800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층)

산업환경기기 & 기계부품 제조전문업체

최고를 지향하는 친환경기업

YHB ECO

창사 29주년

www.yhb.co.kr

YHB 이동식 에어컨 | 조리작업장/주방/산업현장 작업효율 증대!!
 체감온도를 낮춰 최적의 작업환경 보장!!





PTB7000

PTB5000

PTB-W5000(수냉식)
업소 주방에 최적

설치 장소

조리작업장, 주방, 여름캠프장, 골프연습장
 창고작업장, 산업현장, 응접장, 열처리장, 정비소
 고온작업장, 유리작업장, 기계실, 전산서버룸

▶쾌적하고 깨끗한 작업공간 연출
 ▶실내·외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
 ▶이동이 용이한 바퀴 형태
 ▶고온 및 습기에 강력

전국 50개 지점망 이용
 24시간 내 A/S

추천 대한민국 우수중소기업
 대통령 표창 수상기업
 특별가 공급

전국 각 지역 지점/대리점 모집

필터 교체가 필요없는 집진기

YHB (주)YHB ECO / 주식회사 YHB / (주)YHB 토달서비스

본사 및 영업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 12차 501호 ☎02-2029-6400 / FAX 02-2029-6404
 광주 공장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74(오선동) ☎062-952-6633 **인산공장**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1(용제동) ☎063-835-4771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 shh@yhb.co.kr / eco6400@hanmail.net